

# 山林에의 투자 너무 인색하다

우 태 명 / 임업연구원

## 1. 緒 論

-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  
- 우리가 追究하는 快適한 生活環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環境에서 살기를 원한다. 生活의 便利를 가져다 준 文明의 發達은 生活의 量的 向上을 招來하여 에너지의 消耗量을 增加시켜 各種 쓰레기와 有害 폐기물의 發生으로 인하여 食水汚染, 大氣汚染, 酸性비, 野生生物의 消滅, 바다 汚染, 溫室效果, 資源枯渴 等 술한 問題를 오늘 우리 앞에 노출시키고 있다.

福祉社會를 志向하는 이상 産業化와 大量消費를 피할수는 없겠지만 工業의 發達로 인하여 隨伴되는 生活의 量的 向上이 있다면, 반대로 生活의 質的 減少를 招來하는 被害部分도 共存한다는 事實을 곳곳에서 目擊하고 있는 우리는, 그 函數比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環境에 대한 前提的 課題가 될것이므로 優先順位에 따라 工業의 發展이 先行되는 過程에 대한 環境保護의 對應이 있어야 할 것이다.

世界의 耳目이 集中되며 進行中인 우루과이 라운드(UR) 協商에 이어 지난 6월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

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2차 大單後 世界 經濟秩序를 再編한 『브레튼 우즈회담』에 견주어 『生態學의 브레튼 우즈회담』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가운데 現代의 環境問題를 地球村 모두의 共同 關心事로 부각시켰다.

이는 冷戰體制의 瓦解로 世界秩序가 새롭게 形成되는 過程에서 UNCED는 다음世紀의 國際經濟 全般에 크나큰 影響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리우회의에서는 氣候變化協約 등의 締結과 함께 山林의 荒廢化를 防止하고 山林을 資源牧場으로 保護·育成해야 한다는 國際的인 共通認識을 集約, 『森林原則』으로 具體化 시키고자 하였다.

山林은 온갖 生物資源의 寶庫일 뿐만아니라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흡수시켜 地球溫暖化를 防止할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외에도 맑은 물을 끊임 없이 供給해주는 등 그 自體가 주는 惠澤 때문에 保存의 必要性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UNCED 이후 大統領 주재의 環境關係 長官 會議가 있었는데 이날 會議에서는 環境産業에 대한 稅制 및 金融支援을 集中키로 하였으며 8,100억원을 投入하여 環

“

산림 1ha에서는 탄산가스(CO<sub>2</sub>)를 6.4톤 흡수하고 산소(O<sub>2</sub>)를 4.7톤 방출하여 45명이 마시며 살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다.

”

境技街開發院을 만들겠다고도 하였다.

우리는 政府의 이번 對策으로 自然環境이 얼마나 좋아질런지 期待해 보고자 한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날 會議에 大韓民國 國土環境의 65%를 管理하고 있는 山林廳長이나 86%를 管理하고 있는 農林水産部長官이 參席 하였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參席치 못하였다면 정말로 아쉬움이 생긴다.

## 2. 우리나라의 山林投資 現況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國土의 3분지 2가 山林이다. 이렇게 많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는 山林에서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계속 提供하여 주며 木材等 各種 林産物을 生産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使用하는 木材의 15% 程度만 우리나라 산에서 伐採한 나무이고 나머지 使用量은 비싼 外貨를 消費하면서 輸入해서 使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山林은 木材生産 機能보다는 國民의 生存을 위한 基本財이자 必須財인 물과 공기의 生産工場으로서의 役割이 더 強調되고 있다.

山林은 雨期에는 하루에 28.4톤/ha의 물을 덜 흘려 보내고 乾期에는 2.5톤/ha의 물을 더 供給하는 役割을 하며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 汚染된 물을 稀釋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다. 또 山林 1ha에서는 CO<sub>2</sub>를 6.4톤 吸收하고 O<sub>2</sub>를 4.7톤 放出하여 45명이 마시며 살수있는 산소를 供給해 주고 있다.

만일 山林이 없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댐을 더 만들어 물을 가두어야 하고 酸素를 製造해서 供給하는 등 엄청난 事業을 벌여야 한다.

그러므로 山林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國家 財政의 投資를 늘려야 한다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自然環境의 大部分인 山林과 關聯되는 現行法을 보면 國土利用 管理法, 自然環境保全法, 水道法, 自然公園法, 都市計劃法, 文化財保護法, 山林法, 草地法等 最小 36個法이 相互 補完 또는 相衝해 가면서 固有의 機能을 維持하고 있고 中央行政機關만도 建設部, 內務部, 農林水産部, 交通部, 動力資源部, 環境處, 山林廳 등 12個 部處로 多元化되어 있어 國土環境의 行政體制가 問題點 없이 잘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렵다.

이와같이 많은 法과 行政 機關下에서 山主는 各種의 法規로 부터 制限받는 山林을 所有하게 됨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利用할 수가 없게 되어 故意 또는 善意的 被害를 입고 있다.

산에 있는 나무의 價値가 1이라면 나무 以外的의 價値로서 國民을 위하여 提供되는 소위 公益의인 山林의 價値는 34라는 研究 結果를 상기할때 所得도 없는 山主들에게 산을 가꾸라고 하기엔 自由 經濟時代의 理論이 아니더라도 說得力이 없으므로 이제는 受患者의 立場에서 惠澤의 一部를 다시 山林에 環元시켜 投資할수 있는 方案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없이는 人間이 生存하기 어렵다는 事實을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할 重要性에 대한 認識은 크게 희박한것 같다.

經濟 社會의 諸 變遷에 따라 公共의 惠澤 보다는 個人의 金員的 利益이 優先되는 時代가 되어가고 있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最終的으로 木材라는 商品을 통하여 얻는 現金 價値가 다른 事業에 投資한것보다 相對的으로 적기 때문에 山主 모두가 山林에의 投資를 忌避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우리國土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山林에서 1年間 生産되는 林産物의 價値는 約 7,500억원 程度이나 물과 공기, 環境 等 公益에 提供되는 價値는 約 23조원 程度로 推定되고 있는바 1992年の 山林豫算은 약 2,600억원으로 政府 豫算의 0.35%에 不過한 實情이다. 이는 人口의 3분의 1에 該當하는 學生을 위한 教育 豫算의 60분지 1程度이고 漢江에 다리하나 建設하는 費用과 비슷하다면 그 많은 山林을 어떻게 經濟的으로 가꿀수 있을것으로 기대할수 있겠는가?

이웃나라인 日本을 보면 日本은 나무의 蓄積量이 우리보다 3倍 程度 많은 울창한 山林을 가지고 있어 山林을 管理만 해도 되는 段階인데도 山林豫算이 國家豫算의 0.5%를 웃돌고 있으며 林業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수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15倍 程度가 많이 勤務하고 있다.

西獨의 境遇는 山地面積이 國土의 29%에 不過하지만 政府和 民間에서 投資하는 費用이 해마다 GNP의 0.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09%에 불과하다.

國土에서 차지하는 山林 面積比率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山林投資率은 너무나도 微弱한 實情임을 알 수 있는바 無關心의 소치인지, 아니면 재앙이 없어서 인지?

山林이 주는 公益用 效果는 經濟的 價値로 치면 우리나라는 GNP의 18%에 該當한다.

물이나 공기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다고 말을 잘들 하면서도 정작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주는 山林에 대한 國家的 投資는 貧弱하기 이를데 없다고 할것이다.

資源 貧困國인 우리나라 立場에서 그래도 많은 山林資源만이라도 後孫에게 물려준다는 거창한 目標를 제쳐두고 서라도 뻥히 내다보이는 가까운 將來를 위해서 政府는 山林行政을 보다 強化하고 民間部分의 旺盛한 投資를 誘引하는 政策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지금처럼 山林投資 收益率이 銀行金利의 절반도 안되는 미약한 水準에서, 税金이라는 税金은 거의 물어야 하는 實情에서는 山林經營에 나서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때문에 山地에 투기꾼은 들끓어도 나무를 심고 가꾸려는 經營人이 적은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다.

### 3. 育成林業과 環境保存을 위한 對策

現在의 우리나라 山林狀態를 살펴보면 1970年代 初부터 始作한 治山綠化 事業의 成功으로 20년 程度된 나무가 主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으로 比較하면 中學生 程度의 水準이 아닐런지?

우리들의 아이들도 잘 먹이고 잘 다듬고 공부를 시켜야 훌륭한 사람으로 成長할 수 있듯이 나무도 심어만 놓고 그냥 버려둔다면 훌륭한 材木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뻔한 理致인데 오늘날 山林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쓸모없는 나무만 푸르게 있다고 批評은 할 줄 알아도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山林으로 만들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具體적으로 그 方法을 提示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나무로 樹種 更新造林만 하면 저절로 經濟的인 나무가 되는 줄로 착각아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금의 時期야 말로 심어서 잘 크는 나무를 가지치기도 해야하고 솎아베기도 해야하는 등 심는것보다 더욱 精誠과 많은 技術的인 손질이 필요한 時期인데 不足한 人力과 資金不足으로 對象地의 一部를 겨우 施行中이므로 集中的인 投資로 對象地 전체를 育林할수 있는 豫算이 必要하다.

林業도 하나의 産業이라면 投資를 하여야 하는데 現在의 山林을 위한 所有가 아니고 土地로서 財産增殖의 手段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므로 山主마다 나무를 키우는데는 무감각하고 投資를 回避하고 있으며 地價 上昇에 의한 利益만을 罫두에 두고 있

으므로 山主들의 山林管理 意慾을 북돋우고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하기 위하여는 國家에서 『資本財』林業을 營爲할수 있는 政策的 配慮가 必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크게 林業의 內的에서 解決해야 되는것과 林業의 外的인 問題로 부터 解決해야 하는 方案이 있다.

內的인 方案으로는 山林法 等 林業關聯法을 改定 補完하여 制限과 規制가 아닌 助長과 指導를 통한 自律的 施業의 擴大 實施로 山主 意思대로 가꿀수 있도록하며 外的인 方案으로는 國家의 支援을 擴大하여 山林을 가꾸는 것이다.

具體的인 方案으로는 우리의 現行 山林法에서는 伐期齡에 따라 伐採토록 規程하고 있고 나무의 나이에 따라 毀損時에도 復舊費 豫置額의 差異가 있으므로 伐期齡을 根幹으로 하여 『資本財』林業을 誘導하는 政策의 必要性을 提示코자 한다.

林野自體는 林業經營의 成果 對象이 아니므로 林野를 사고 파는 것은 稅制로서 投機를 防止토록 함이 必要할것이나 林木의 伐採 및 山林 毀損時는 伐期齡에 따라 差等的으로 義務와 惠澤을 달리하도록 山林法과 關聯 다른法을 적용하므로써 山主의 意思에 따라 자기 山林을 가꿀수 있는 制度가 必要한 것이다.

예를들면 伐期齡이 50年인 소나무의 경우 50年 以上된 林地를 伐採하고자 할때는 法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國家의 惠澤은 最大한 提供하며 伐採에 따른 山主의 業務는 없도록 하고 40年傾에 伐採하고자 할때에는 國家의 惠澤은 伐期齡 以上の 境遇보다 20%程度를 減하여 주는 대신 山主가 하여야할 業務는 反對로 20%程度를 더 賦課

하도록 하고, 만약 20年쯤 자란 林地를 伐採하고자 한다면 國家의 惠澤은 60% 程度를 減하고 山主의 業務는 60%程度를 더 賦課하도록 하는 制度를 施行하자는 것이다.

즉 伐期齡에 基準을 두고서 山主 스스로가 자신의 山林을 管理하고 必要할때는 자기의 業務를 履行하는 限度內에서 스스로의 決定에 의거 事業을 할수 있도록 法規를 改定한다면 現行의 規制의인 山林法이 自律化 情神에 적응토록 되어 山主들로 부터는 不平이 없어질 것이고 山林公務員들은 山主가 하고자 하는 事業에 義務 履行與否를 確認하여 國家의 支援 範圍를 決定하고 支援하고 細部的인 技術 指導를 하여 주도록 하므로서 許可制度로 因한 不正의 素地가 없어지는 等 能率의인 行政 遂行이 期待된다.

規制를 하므로서 피해가려는 요령꾼을 키우는것 보다는 正直한 山林經營人을 키우는 것이 國家 百年 大計에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쓸모있는 나무가 울창하게 서있는 山林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晝夜없이 흘러나오며 아름다운 景致를 提供하여 國民情緒 涵養과 保健 休養에 寄與할수 있는 山林을 造成하는데 山主 모두가 參與할수 있도록 施業의 自律化를 이룰수 있는 山林法規의 改定을 提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國土의 65%를 資源化하며 公益機能을 最大한 發揮토록 山林豫算의 擴充을 위하여 山地의 利用者와 山林으로 부터 惠澤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기왕의 受惠者 負擔金의 一部를 다시 山林에 投資토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自然公園을 찾는 入場客이나 觀光地를 찾는 觀光客으로 부터 入場料라

“산림은 맑은물을 저장하는 스폰지이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산림 소유자들은 물을 생산 저장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나 아무런 보상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든가 一定 比率만큼 이라도 이들의 繼續的인 效用 維持를 위하여 再投資할수 있는 豫算確保案을 提示코자 한다.

現在까지는 단 한푼도 맑은 물을 계속 供給하여 주는 上流의 山林에 대하여 再投資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上水源 上流地域 山林所有者들은 各種 制限規程으로 인한 山林의 利用制限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지는 반면 木材價格의 下落으로 伐採도 할수 없는 立場인데 税金은 물어야 되므로 政府에 대하여 政策的 配慮를 要求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公園과 觀光地 收入 및 上水道 料金과 水力發電으로 건우어 들이는 電氣料中에서 10%程度를 地方費로 주도록 하여 地方自治 團體長이 直接 自己管轄의 山林에 投資할수 있도록 한다면 不足한 管內 山林事業을 山主 代身 地方團體長이 遂行토록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財源은 税金을 더 건우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國民에게는 被害가 없고 山主들에게는 산을 가꾸어 주는 혜택이 돌아가지 결국은 山林은 잘 가꾸어 질것이고

國土는 資源化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진다.

山林이 주는 아름다운 景致와 自然 資源, 그리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부터 발생하는 財源은 觀光料, 上水道 使用料, 水力發電 電氣料, 工業用水 利用料, 農業用水 使用料 등이 있으나 實際 적용은 어떤 名目으로 얼마만한 負擔率을 再投資費로 還元할것 인가는 融通性을 가지고 접근함이 要求된다.

上水道 使用料는 年間 5,000억원 程度이며 水力 電氣料는 2,500억원 程度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될경우 國民 負擔이 追加되는 것도 아니고 이程度는 經營技法의 改善으로 節約할수도 있다고 判斷되므로 늘어난 汚染과 環境 毀損을 減少시키며 繼續하여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提供해주는 堡壘로서의 山林 즉 우리의 錦繡江山을 保護하는 財源으로 再投資 된다면 오물더미에서 황금을 찾아 내는 것 같이 現代의 가치있는 鍊金術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 4. 結 論

子子孫孫 代를 이어 가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錦繡江山을 오늘의 우리가 모두 毀損하고 汚染시켜 버려 살수없는 땅으로 만든다면?

工產品과 쓸 나무는 輸入할수 있어도 아름다운 산은 輸入할수가 없다. 政府는 政府대로 山林保存을 위한 豫算을 劃期的으로 增額하여 가꾸어야 할것이며 國民은 國

民대로 意識과 生活習慣속에 汚染과 毀損防止를 위해 禁止된 事項은 꼭 지키겠다는 良心이 절대 必要한 것이다.

옛날부터 “治山治水 治者の 根本”이라 하였으며 “山林이 울창한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는 없었다”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고, 더 이상의 自然破壞를 防止하고 資源의 寶庫인 山林을 잘 가꾸기 위하여는 必要惡이 되더라도 새로운 財源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財源은 現在도 徵收하고 있는 自然景觀을 관람하는 觀光收入과 물의 使用料중에서 우선 一部라도 山林에 再投資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과 같이 山林에의 投資를 모두 기피하는 狀況에서 不足한 木材의 供給을 익하고 山林이 갖는 公益機能의 增進을 위한 方案으로 우리나라가 選擇할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林業政策으로 믿는다.

불어난 汚染과 公害를 減少시키고 增加하는 自然毀損을 沮止시키며 綠色으로부터 얻어지는 無限의 惠澤을 子子孫孫 享有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現在 처하고 있는 林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林業內的으로는 山林과 關聯된 法令의 整備와 技術開發을 통하여, 外的으로는 보다더 많은 保護, 育成을 위한 財源 投資를 誘導하기 위하여 衆知를 모아야 할 때라고 믿으며 그리하여 아름다운 景致와 맑은 물이 恒常흐르며 깨끗한 공기로 가득찬 山林富國이 될수 있도록 山林을 가꾸는 任務를 우리 모두는 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고 감히 한다고 감히 主張하는 바이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 '92 밤 및 송이價格安定資金 226億원 支援

山林廳에서는 農山村의 主要所得 品目이 되고있는 밤 및 송이 收穫期를 앞두고 洪水 出荷防止와 價格安定을 통해 生産農家의 所得增大를 圖謀하고, 零細輸出業體를 支援하기 위해 밤 및 송이價格安定資金 226億원을 配定하였다.

山林廳에 따르면 '92년도 밤生産農家 保護를 위하여 出荷調節資金 100億원과 價格安定 및 輸出物量 確保를 위한 밤輸出業體 收買資金 96億원 등 밤價格安定資金 196億원을 配定하고

- 밤出荷調節資金은 年利 5%로 農協을 통하여 支援하며, 戶當 融資限度額도 10百萬元에서 20百萬元으로 引上하였으며,  
- 밤輸出收買資金은 金利를 年利 10%에서 年利 8%로 引下하여 農產物流通公社를 통하여 支援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이價格安定과 輸出物量 確保를 위해 송이輸出收買資金 30億원을 今年度에 新規로 反映하여 年利 8%로 輸出業體에 支援키로 하고 農水產物流通公社에 配定하였다.

한편 '91年度 밤生産量은 8萬9千톤으로서 이중 3萬4千톤을 輸出하여 9,922萬\$

의 外貨를 獲得한 바 있으며, 今年度에도 輸出計劃量 4萬톤, 輸出金額 1億달러以上은 무난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山林廳이 밝힌 '92年度 밤 및 송이 價格安定資金支援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總融資支援額 : 226億원

○ 出荷調節資金

- 融資 對象者 : 밤生産 農家로서 밤貯藏 希望者

- 融 資 條 件

金 利 - 年 5 %

融 資 期 間 - 1 年

戶當支援限度額 - 20百萬元

融 資 單 費 - kg當 700원

- 融 資 申 請 : 農業協同組合 單位組合

- 支 援 時 期 : '92. 8 ~ 12月末까지

○ 輸出收買資金

- 融資 對象者 : 밤 및 송이輸出業體

- 融 資 條 件 : 金 利 - 年 8 %

期 間 - 1 年

融 資 限 度 額 - 收 買 所 要 額

의 80%以內

- 融 資 申 請 : 農水產物流通公社

- 支 援 時 期 : 8月中

철저한 분리 배출, 철저한 분리 수거

-쓰레기-